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 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 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Executive Summary	i
1. 저출산의 늪	1
2.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3
3. 결론	15
4. 시사점	17
【별첨 1】 연령별 출산율 변화	20
【별첨 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추세	20
【별첨 3】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0
【별첨 4】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	21
【HRI 경제 통계】	22

< 요약 >

□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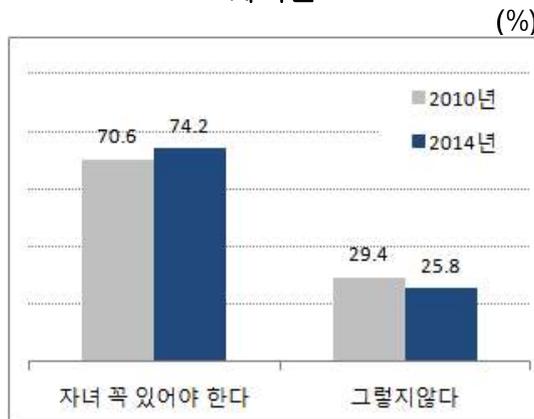
■ **저출산의 늪:**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13년 1.18명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여,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평균 출산연령도 29세로 고령출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원인과 해결책을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결혼관) 20~30대 3명 중 2명(65.5%)은 결혼에 긍정적이며 2010년(54.4%)에 비해 긍정적 의견 증가하였다. 미혼자의 긍정적 의견이 기혼자보다 많고 201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순이며, 미혼자의 경우엔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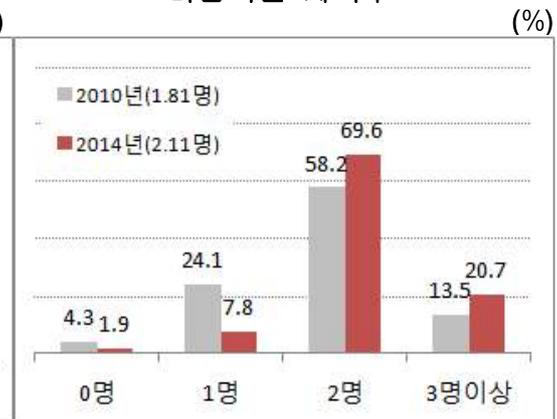
(자녀관) 마찬가지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이며, 4명 중 3명(74.2%)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부정적이다. 자녀를 꺼리는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3%)과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등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미혼자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바람직한 자녀수는 2010년 1.81명에 비해 증가한 2.11명이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희망자녀수가 더 많았다. 미혼자 중 입양과 혼외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각각 70.5%, 48.1%이다.

< 자녀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바람직한 자녀수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양육태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71.7%가 부부 및 친인척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미혼자, 20대의 의견이 많았다. 가장 부담스러운 양육비용은 '사교육비'와 '보육서비스 비용'이며, 자녀의 양육비용은 월86.8만원, 육아시간은 하루3.6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아이맡길 곳이 없어서'로 기혼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되었다. 미혼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출산 후 복직, 직장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저출산 정책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로 미혼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내 제도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혼자는 상대적으로 '휴가/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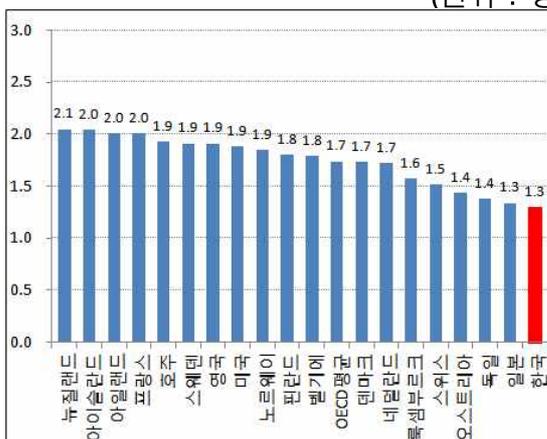
(종합)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결혼보다 자녀에 대해 좀더 호의적이다. 결혼과 자녀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는 2명 중 1명(54.6%)이며, 결혼과 자녀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경우는 6명 중 1명(16.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결혼과 자녀 모두 긍정적인 경우가 절반(53.7%) 수준이나, 결혼은 부정적이고 자녀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경우가 33.6%가 되고 있어 자녀관뿐만 아니라 결혼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녀수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실제 출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치관과 달리 경제/고용상황 불안, 관련 비용 상승 등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구조적, 비자발적 제약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이용'의 필요성은 높으나, '보육시설'의 부족 및 질적인 신뢰도가 낮아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30대 미혼자의 입양 및 혼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접적, 대안적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저출산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맞춤형 저출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임산부를 '분만취약자'로 지정, 특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입양 및 혼외출산 등의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혼자의 보육시설 욕구 충족 및 미혼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1. 저출산의 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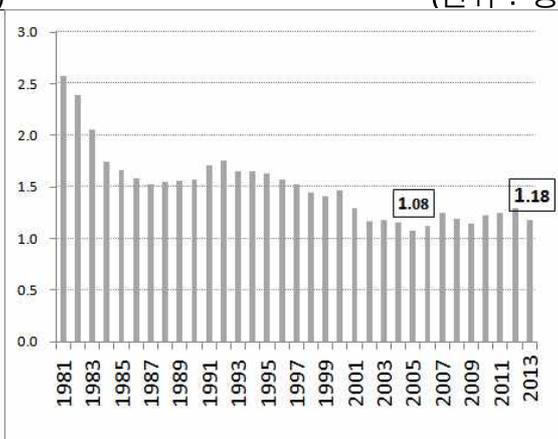
-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출산연령도 29세로 고령출산이 꾸준히 증가
-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에 불과하고, 2012년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1980년 2.82명에서 절반 이하로 하락함
 -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계출산율 1.5명 이상의 저출산국에 해당되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국 수준임
 - OECD 평균(2010년 1.74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임
 -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상승세 없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하여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나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음
- 평균 출산연령은 29.1세로 OECD 평균 27.8세보다 많고, 30대 출산율은 계속 증가세인데 비해 20대 출산율은 감소세임
 -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연령은 29.1세로 30대~34세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대의 출산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¹⁾

< 국가간 합계출산율 비교(2012년) >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EUROSTAT,
미국/호주/뉴질랜드는 각국의 통계청.
주 : 프랑스/영국 2011년,
일본 2010년, 기타 국가 2012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세 >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주 :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세~49세)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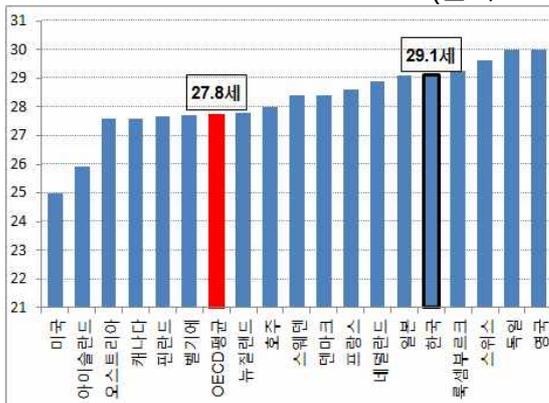
1) 【별첨1】 연령별 출산율 - 참고.

- 평균 출산연령이 29세 이상인 국가 중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상황으로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보육 및 육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선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임
 - 2005년 저출산·고령화 정책²⁾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육 및 육아예산이 증가되어 왔으며, 2013년 예산은 8.6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3%가 증가함
 -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³⁾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⁴⁾
- 본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원인과 해결책을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함

- 전국 20~30대 기혼·미혼 남녀 540명⁵⁾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샘플링을 통해 전화조사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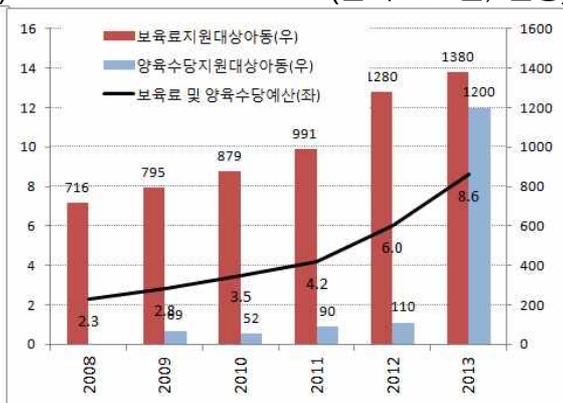
< 평균 출산연령 비교 >

(단위 : 세)



< 보육 및 육아예산 추세 >

(단위 : 조원, 천명)



자료 : OECD 2012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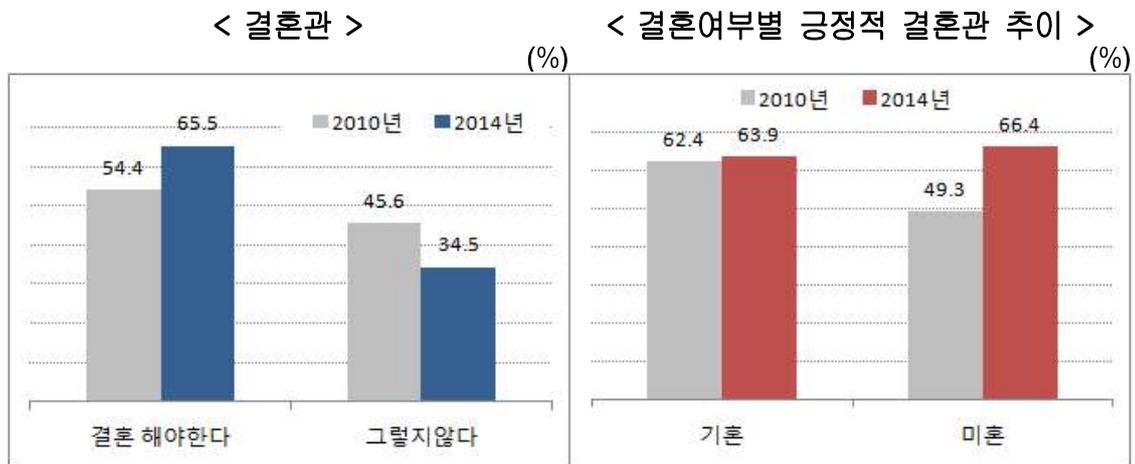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주 : 국고비와 지방비 합계 기준.
보육료-시설이용시 지원금액.
육아수당-가정육아시 지원금액.

- 2)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가족계획사업) 폐지, 2005~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2011~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3) 【별첨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참고.
- 4)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율 향상과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동시에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음.
- 5)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은 【별첨3】 참고.

2.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6)

(1) 전반적인 결혼관 및 자녀관

- 20~30대 응답자 3명 중 2명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2010년에 비해 증가
 - 응답자의 65.5%가 결혼에 긍정적이며 2010년(54.4%)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결혼에 긍정적임
 - 2010년에 비해 미혼자의 긍정적 의견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미혼자(66.4%)가 기혼자(63.9%)보다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경우가 많음
 -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72.2%가 결혼에 긍정적이던데 비해 여자는 59.6%로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와 30대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긍정적 결혼관'은 '결혼해야한다'는 응답률임

< 결혼관 >

(단위 : 명, %)

		빈도(명)		결혼해야한다(%)		그렇지 않다(%)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연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전체		561	539	305	353	256	186
		100(%)	100(%)	54.4	65.5	45.6	34.5
연령	20대	241	248	54.8	64.9	45.2	35.1
	30대	320	291	54.1	66.0	45.9	34.0
성별	남자	204	252	68.6	72.2	31.4	27.8
	여자	357	287	46.2	59.6	53.8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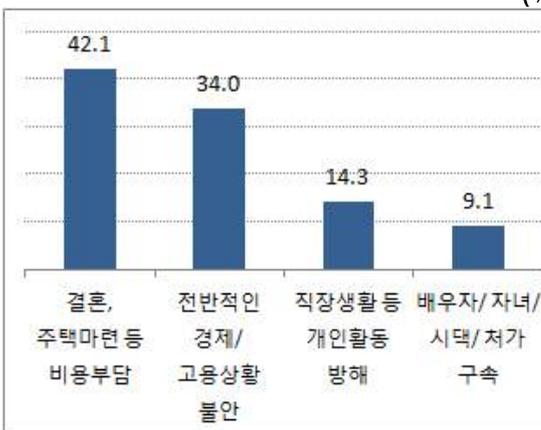
6) 전국 20~30대 기혼·미혼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샘플링,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별첨3】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참고.

○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이며, 결혼관에 따라 결과 상이

-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전반적인 경제 및 고용 상황 불안'(32.3%)이 가장 큰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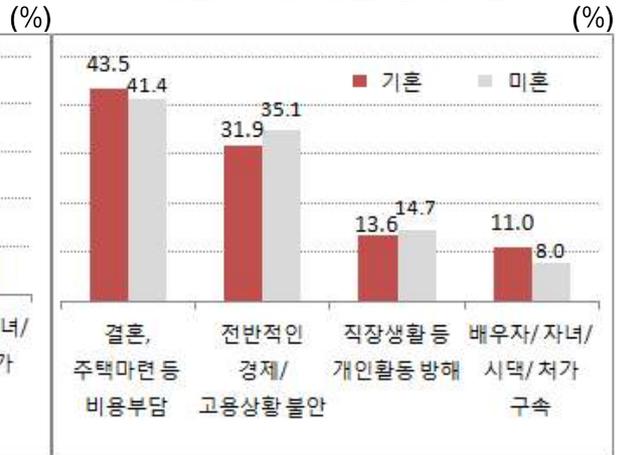
- 성별에 따라 응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34.5%)이 가장 큰 이유임
-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직접 비용적 측면보다 경제 및 고용상황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고려함

< 결혼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결혼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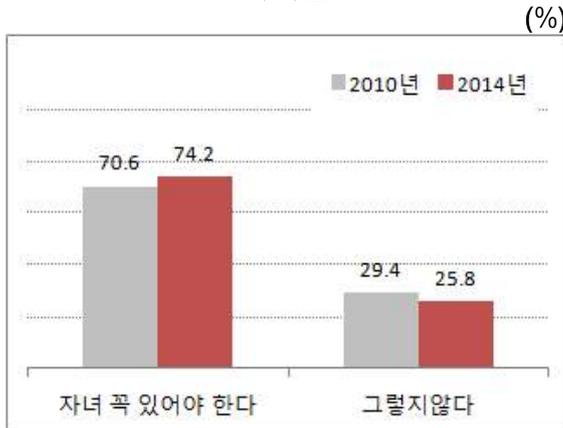
< 결혼 장애요인 >

(단위 : 명, %)

		빈도 (명)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직장생활 등 개인활동 방해	배우자/자녀/시댁/처가 구속	기타
전체		539	42.1	34.0	14.3	9.1	.6
결혼관	꼭 해야한다	353	48.4	34.8	9.9	6.8	.0
	그렇지않다	186	30.1	32.3	22.6	13.4	.9
연령	20대	248	44.8	31.5	14.5	8.9	.4
	30대	291	39.9	36.1	14.1	9.3	.7
성별	남자	252	51.2	33.3	9.5	5.6	.4
	여자	287	34.1	34.5	18.5	12.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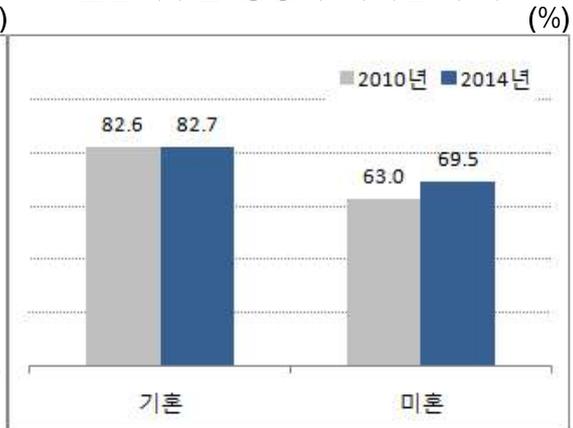
- 결혼관과 마찬가지로 자녀관 역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이 증가하였으며, 20~30대 응답자 4명 중 3명은 자녀에 긍정적
 -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74.2%이며, 2010년에 비해 여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 되었고 미혼자는 결혼관과 반대로 기혼자에 비해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임
 - 미혼자의 자녀관도 2010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4명 중 1명은 결혼에 부정적이며 기혼자(82.7%)와 큰 차이를 보임
 - 여자(73.2%)의 경우, 결혼관과 달리 자녀관은 남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이 크게 증가함

< 자녀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긍정적 자녀관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긍정적 자녀관'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임

< 자녀관 >

(단위 : 명, %)

		빈도(명)		꼭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연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전체		561(명)	539(명)	396명	401명	165명	139명
		100.0	100.0	70.6	74.2	28.5	25.7
연령	20대	241	248	68.0	71.4	31.5	28.5
	30대	320	291	72.5	76.6	26.3	23.4
성별	남자	204	252	78.4	75.4	19.1	24.6
	여자	357	287	66.1	73.2	33.9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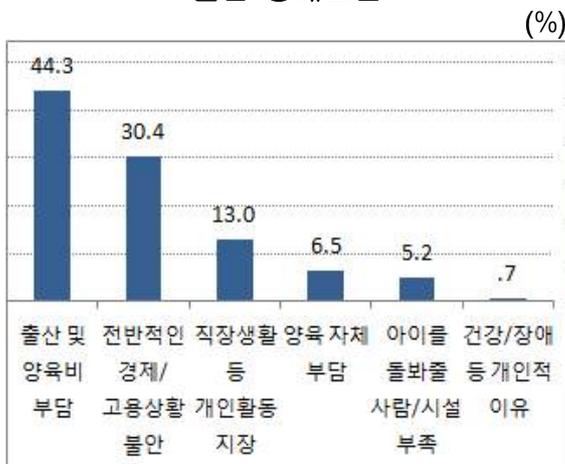
○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않는 이유는 '출산 및 육아비 부담'(44.3%)과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등 결혼을 꺼리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

- 응답자의 44.3%가 '출산 및 육아비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미혼자가 이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 미혼자(47.9%)나 20대(51.4%)의 경우 절반이 '출산 및 육아비 부담'을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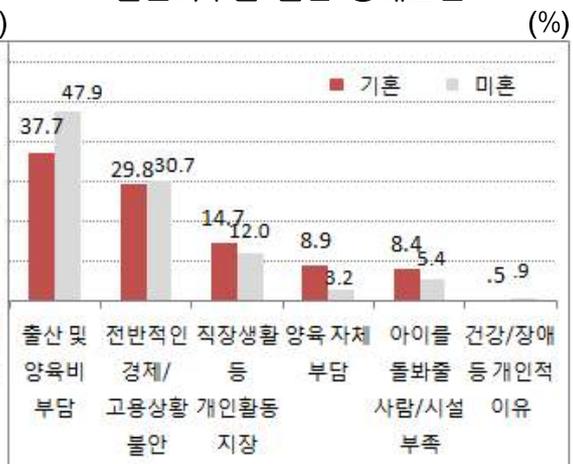
·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진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생활 등 개인활동 지장'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 출산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출산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출산 장애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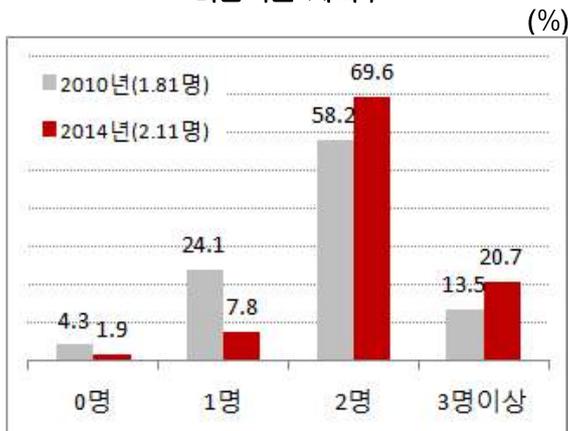
(단위 : 명, %)

		빈도 (명)	출산 및 육아비 부담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불안	직장생활 등 개인활동 지장	육아 자체 부담	아이 돌봐줄 사람/시설 부족	건강/장애 등 개인적 이유
소계		540	44.3	30.4	13.0	6.5	5.2	0.7
자녀관	꼭 있어야 한다	401	46.1	30.7	11.0	5.5	6.2	.5
	그렇지 않다	139	38.8	29.5	18.7	4.3	7.2	1.4
연령	20대	249	51.4	27.3	12.9	5.2	2.8	0.4
	30대	291	38.1	33.0	13.1	7.6	7.2	1.0
성별	남자	252	46.0	34.9	11.1	5.2	2.8	0.0
	여자	288	42.7	26.4	14.6	7.6	7.3	1.4

(2) 바람직한 자녀수와 육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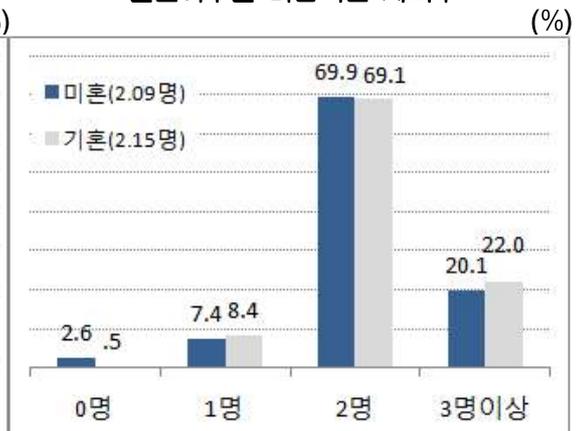
- 2010년(1.81명)에 비해 바람직한 자녀수가 증가(2.11명)하였으며, 3명 중 2명은 '2명'의 자녀를 희망
 - 응답자의 69.6%가 자녀수를 '2명'을 희망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을 선택한 경우도 20.7%로 바람직한 자녀수가 평균 2.11명임
 - 기혼자의 경우 평균 2.15명으로 미혼자 2.09명보다 바람직한 자녀수가 많고, 기혼자 중 자녀수 2명이상인 경우 바람직한 자녀수가 2.31명으로 가장 많음
 - 남자(2.13명)가 여자(2.09명)에 비해 바람직한 자녀수가 많으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16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바람직한 자녀수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바람직한 자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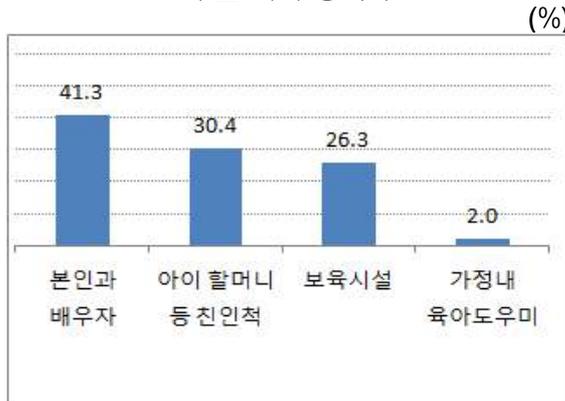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바람직한 자녀수 >

		빈도(명)	0명	1명	2명	3명이상	희망자녀수 평균
전체		540	1.9	7.8	69.6	20.7	2.11
결혼	미혼	349	2.6	7.4	69.9	20.1	2.09
	기혼	191	.5	8.4	69.1	22.0	2.15
	자녀수						
	0명	49	2.0	12.2	65.3	20.4	2.06
	1명	61	.0	11.5	75.4	13.1	2.02
	2명이상	81	.0	3.7	66.7	29.6	2.31
성별	남자	252	2.0	7.1	69.0	21.8	2.13
	여자	288	1.7	8.3	70.1	19.8	2.09
소득	300만원이하	180	2.2	6.7	66.1	25.0	2.16
	301-500만원	246	1.6	9.3	72.0	17.1	2.06
	501만원이상	106	1.9	6.6	70.8	20.8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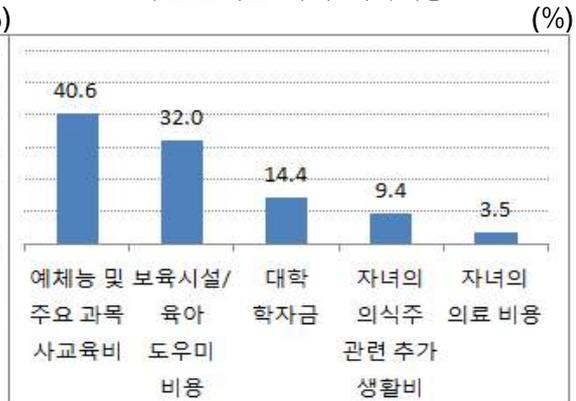
-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본인과 배우자' 및 '친인척' 등 육아시설이 아닌 직접양육을 선호하며, 가장 부담스러운 육아비용은 '사교육비'와 '보육시설/도우미 비용'
-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본인과 배우자'(41.3%)와 '할머니 등 친인척'(30.4%)을 희망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4명 중 1명에 그침
 - 직접양육(본인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혼자, 20대, 남자, 무자녀 기혼자가 많음
 - 4명 중 1명이 보육시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자, 30대, 다자녀일수록 선호도가 높음(다자녀 기혼자의 40.7%가 희망)
- 자녀 육아와 관련하여 부담스러운 비용은 '예체능 및 주요과목 사교육비'(40.6%), '보육시설/육아도우미 비용'(32.0%) 등임
 - 2명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1%가 '보육시설/육아도우미 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으로 응답함

< 주된 자녀 양육자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자녀의 주된 양육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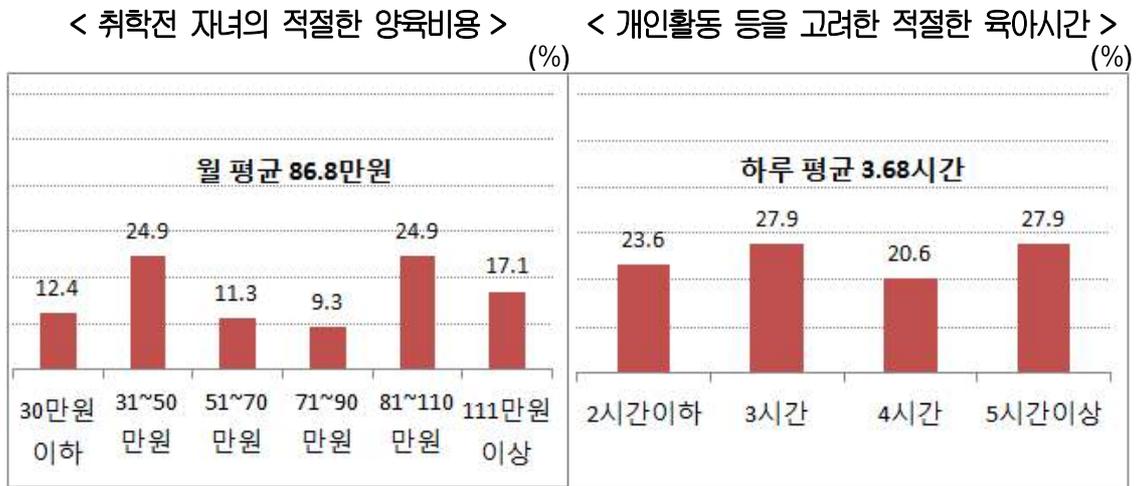
(단위 : 명, %)

		빈도(명)	본인과 배우자	할머니 등 친인척	보육시설	가정내육아도우미	
전체		540	41.3	30.4	26.3	2.0	
결혼	기혼	191	39.8	29.3	29.8	1.0	
	미혼	349	42.1	30.9	24.4	2.6	
	자녀 수	0명	49	46.9	32.7	16.3	4.1
		1명	61	41.0	32.8	26.2	.0
2명이상		81	34.6	24.7	40.7	.0	
연령	20대	249	43.8	32.1	22.1	2.0	
	30대	291	39.2	28.9	29.9	2.1	
성별	남자	252	51.2	25.4	22.2	1.2	
	여자	288	32.6	34.7	29.9	2.8	

7)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은 【별첨4】 참고

○ 취학전 자녀의 적절한 양육비용은 월평균 86.8만원, 육아시간은 하루 평균 3.68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상대적으로 미혼자와 20대가 육아 비용 및 시간에 대해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대체로 20대, 미혼자, 여성이 양육비용 및 육아시간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낌
 - 적절한 양육비용⁸⁾으로 '31~50만원', '81~110만원'을 선택한 경우가 각 24.9%로 가장 많으며, 특히 미혼, 20대의 경우 평균 1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육아시간의 경우에는 20대와 여자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취학전 자녀의 적절한 양육비용 및 육아시간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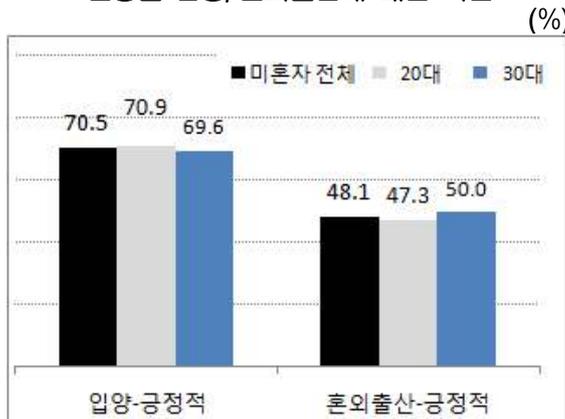
(단위 : 만원, 시간)

	전체	결혼		연령		성별		자녀수			자녀관	
		기혼	미혼	20대	30대	남자	여자	0명	1명	2명이상	꼭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평균 양육비용 (만원)	86.8	65.6	101.1	103.4	74.4	83.6	89.7	89.3	60.4	56.6	84.4	93.8
평균 육아시간 (시간)	3.68	3.64	3.71	3.82	3.57	3.08	4.22	3.63	3.79	3.53	3.76	3.48

8) 육아정책연구소 『육아 지출 현황 어떠한가?』 육아정책 Brief 14호 (2013. 6. 10) 에 의하면, 영유아(생후 72개월이하) 월육아지출총액(서비스+ 상품)은 118.2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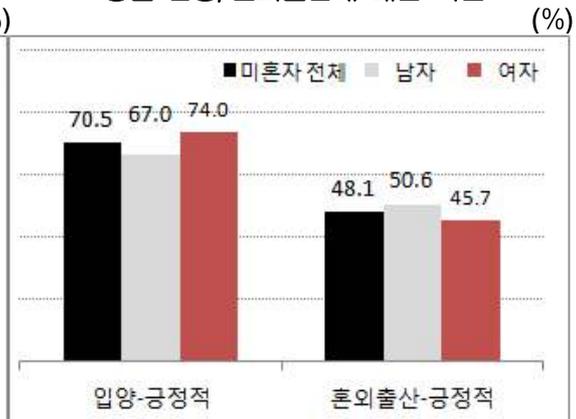
- 20~30대 미혼자 3명 중 2명은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며, 2명 중 1명은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
- 20~30대 미혼자 중 입양 및 혼외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가 각각 70.5%, 48.1%이며, 부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을 가진 경우 입양과 혼외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임
 -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경우 입양에 대해 76.1%,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51.3%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진 경우에 입양에 대해 74.5%, 혼외출산에 대해서 53.8%로 평균 이상임
 - 입양에 대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긍정적이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6.1%로 높은 수준임
 -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임

< 연령별 입양/혼외출산에 대한 의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성별 입양/혼외출산에 대한 의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입양/혼외출산에 대한 의견 >

(단위 : 명, %)

	전체	결혼관		자녀관		소득수준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	꼭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300만원 이하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빈도(명)	349	231	117	243	106	134	151	59
입양-긍정적	70.5	67.5	76.1	68.7	74.5	76.1	70.2	59.3
혼외출산-긍정적	48.1	46.3	51.3	45.7	53.8	50.7	45.0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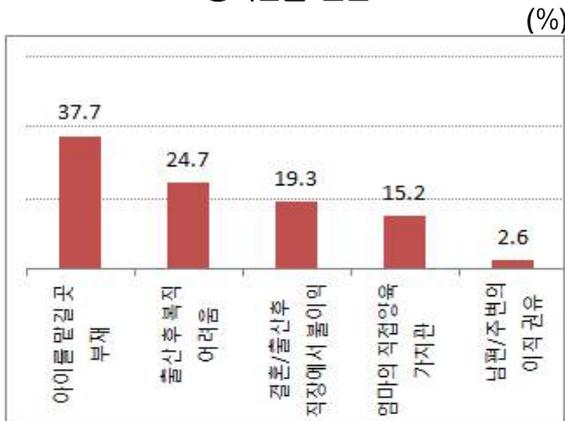
(3) 경력단절의 원인 및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

○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을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혼자의 절반이 해당

-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37.7%)이며, ‘출산후 복직 어려움’(24.7%)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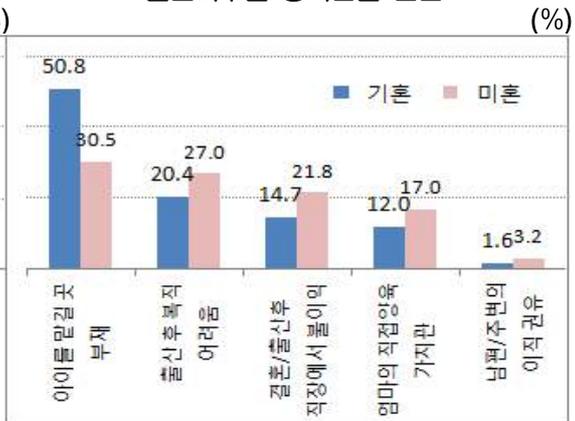
- 여자의 경우 ‘아이맡길 곳이 없어서’를 선택한 경우가 45.3%로 남자(29.0%)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의 경우 ‘결혼/출산 후 직장에서 불이익’(24.6%)을 여자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함
- 미혼자 및 20대의 경우에는 ‘출산 후 복직 어려움’, ‘결혼/출산후 직장에서 불이익’ 등 직장관련 원인을 기혼자,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함

< 경력단절 원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경력단절 원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력단절 원인 >

	전체	성별		연령		자녀수		
		남자	여자	20대	30대	0명	1명	2명이상
		(단위 : 명, %)						
빈도(명)	539	252	287	249	290	49	61	81
아이 맡길 곳 부재	37.7	29.0	45.3	27.7	46.2	38.8	49.2	59.3
출산 후 복직 어려움	24.7	27.0	22.6	26.9	22.8	24.5	21.3	17.3
결혼/출산후 직장에서 불이익	19.3	24.6	14.6	22.5	16.6	24.5	13.1	9.9
엄마의 직접육아 가치관	15.2	13.9	16.4	18.5	12.4	8.2	14.8	12.3
남편/주변의 이직 권유	2.6	4.4	1.0	4.0	1.4	4.1	1.6	.0
기타	.6	1.2	.0	.4	.7	.0	.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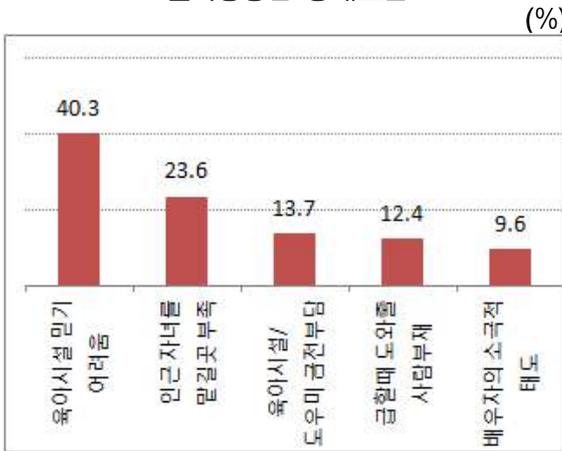
○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육아시설을 믿기 어려워서(아이 맡기기 어려움)', '인근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등 육아시설 및 서비스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육아시설을 믿기 어려움'(40.3%)이며,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의 부재'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육아시설에 대해 신뢰도'는 기혼자의 의견이 많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가장 낮아 거의 절반이 49.0%가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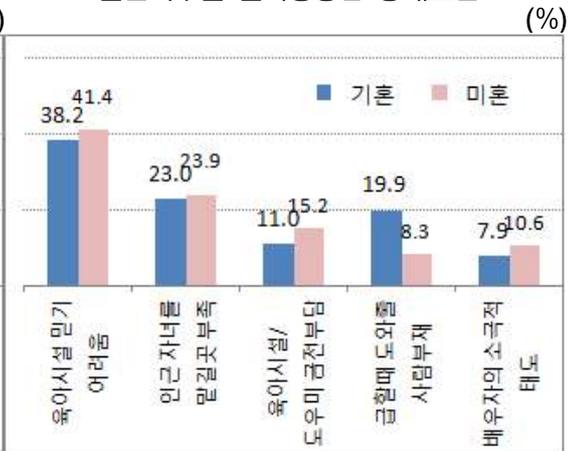
·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여자, 30대, 다자녀 기혼자에게 중요한 원인이 됨

< 일가정양립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일가정양립 장애요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 >

(단위 : 명, %)

	전체	성별		연령		(기혼자) 자녀수		
		남자	여자	20대	30대	0명	1명	2명이상
빈도(명)	539	251	288	249	290	49	61	81
육아시설 믿기 어려움	40.3	41.4	39.2	40.3	40.2	49.0	47.5	24.7
인근에 자녀 맡길 곳 부족	23.6	23.9	23.3	23.0	24.1	24.5	13.1	29.6
육아시설/도우미 금전부담	13.7	16.7	11.1	14.9	12.7	14.3	8.2	11.1
급할 때 도와줄 사람부재	12.4	8.8	15.6	8.9	15.5	8.2	19.7	27.2
배우자의 소극적 태도	9.6	9.2	10.1	12.1	7.6	4.1	11.5	7.4
기타	.4	.0	.7	.8	.0	.0	.0	.0

(4)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양립 제도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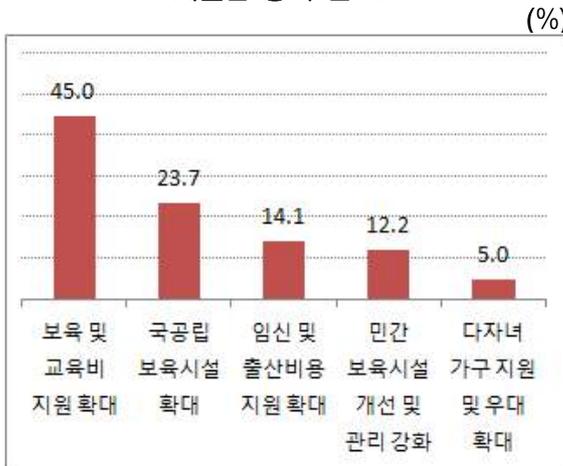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확대' 순임

- 응답자의 45%가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를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선택하였고, 미혼자 및 다자녀 기혼자의 응답률이 높음

· '민간 보육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에 대해 여자의 응답률이 14.6%로 남자의 경우(9.5%)보다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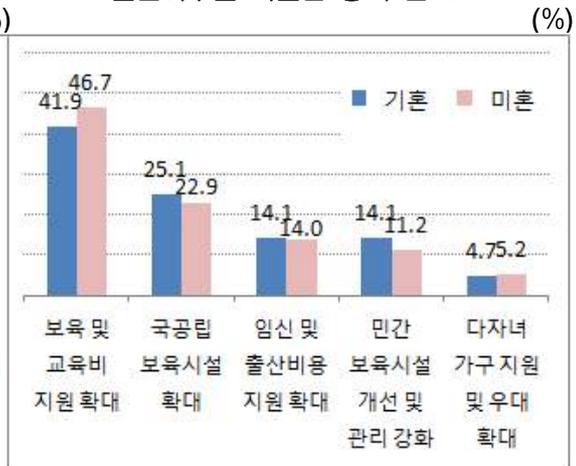
·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확대'가 22.4%로 매우 높은 편이며, 다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엔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우대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편임

< 저출산 정책 선호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저출산 정책 선호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저출산 정책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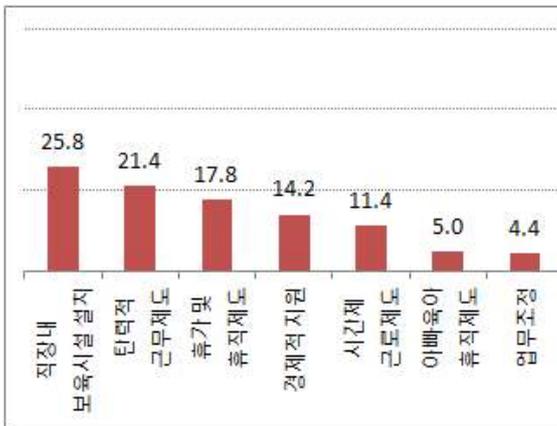
		빈도 (명)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확대	민간 보육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우대 확대
전체		540	45.0	23.7	14.1	12.2	5.0
성별	남자	252	43.3	25.0	14.7	9.5	7.5
	여자	288	46.5	22.6	13.5	14.6	2.8
연령	20대	249	45.4	20.9	16.5	12.0	5.2
	30대	291	44.7	26.1	12.0	12.4	4.8
자녀관	꼭 있어야 한다	401	44.4	22.7	15.0	12.2	5.7
	그렇지 않다	139	46.8	26.6	11.5	12.2	2.9
(기혼자) 자녀수	0명	49	36.7	26.5	22.4	10.2	4.1
	1명	61	39.3	21.3	19.7	18.0	1.6
	2명 이상	81	46.9	27.2	4.9	13.6	7.4

○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내 제도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탄력적 근무제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25.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공무원/공공단체 종사자(30.4%), 자녀없는 기혼자(31.2%)의 경우 응답률이 높음
- '탄력적 근무제도'는 30대, 여자, 다자녀 기혼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시간제 근로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11.4%로 높지 않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기업/민간단체 종사자 및 2명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의 경우 다소 높음

< 직장내 일가정양립 제도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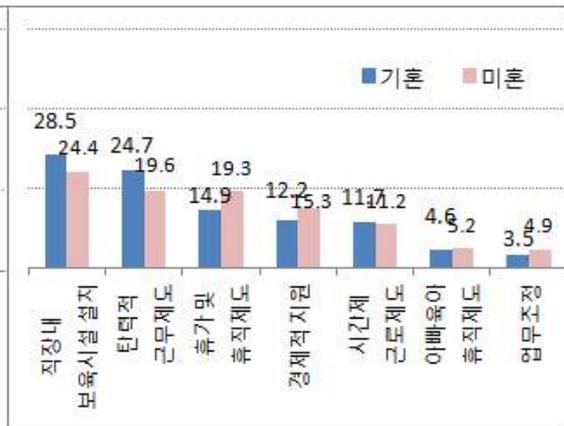
(복수응답,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결혼여부별 일가정양립 제도 선호도 >

(복수응답,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직장내 일가정양립 제도에 대한 선호도 >

(복수응답,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탄력적 근무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경제적 지원	시간제 근로제도	아빠육아 휴직제도	업무조정
전체		25.8	21.4	17.8	14.2	11.4	5.0	4.4
연령	20대	23.7	18.6	18.0	16.4	12.7	5.9	4.7
	30대	27.6	23.8	17.6	12.3	10.2	4.2	4.2
성별	남자	26.5	19.6	16.7	14.5	12.4	6.1	4.3
	여자	25.3	23.0	18.7	14.0	10.4	4.1	4.6
자녀관	꼭 있어야 한다	26.0	20.8	18.7	13.7	12.1	4.3	4.3
	그렇지 않다	25.2	23.0	15.2	15.6	9.3	7.0	4.8
직업	기업/민간단체	23.0	21.9	19.3	11.6	12.8	5.6	5.8
	공무원/공공단체	30.4	23.0	14.3	15.3	9.6	4.2	3.2
(기혼자) 자녀수	0명	31.2	25.8	11.8	12.9	9.7	7.5	1.1
	1명	28.7	20.0	19.1	12.2	12.2	6.1	1.7
	2명이상	26.7	27.3	13.7	11.8	12.4	1.9	6.2

3. 결론

- 2010년에 비해 긍정적 의견이 많아졌으나 아직까지 20~30대 2명 중 1명만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며, 가치관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현실적 제약 존재
 - 전반적으로 결혼보다 자녀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바람직한 자녀수(2.11명)와 출산 자녀수(합계출산율 1.30명)간 큰 차이를 보이며, 결혼과 출산의 주요 장애요인은 구조적·현실적 상황(경제상황, 양육비의 부담 등)
 - 결혼과 자녀 모두 긍정적은 경우는 20~30대 응답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 (바람직한 자녀수 2.22명)
 - 5명 중 1명 정도는 자녀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자녀수가 2.23명으로 최고 수준
 - 결혼을 방해하는 주 요인은 '결혼 및 주택마련 비용부담과'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출산을 방해하는 주 요인 역시 '출산 및 양육비 부담'과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등 구조적 상황
 -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결혼은 부정적이나 자녀관은 긍정적이며, 결혼 및 출산 장애요인은 기혼자와 유사하나 상대적 중요도 차이
 - 미혼자 3명 중 1명은 결혼은 부정적이고 자녀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자녀수 2.25명으로 가장 많아, 자녀관뿐만 아니라 결혼관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자녀수의 현실화 유도
 - 결혼과 자녀에 대해 모두 호의적인 미혼자(53.7%)가 기혼자(60.7%)에 비해 적고, 결혼과 자녀 모두에 대해 비호의적인 경우는 미혼자(17.8%)가 기혼자(14.1%)보다 많아 미혼자가 대체로 결혼과 자녀에 대해 부정적
 - 미혼자는 결혼 장애요인으로 '전반적인 경제/고용상황', 출산 방해요인으로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고려

< 20~30대(N=540)의 결혼관/자녀관 및 바람직한 자녀수 >

		결혼관	
		꼭 해야한다(65.5%)	그렇지 않다(34.5%)
자 녀 관	꼭 필요하다 (74.3%)	54.6% (바람직한 자녀수: 2.22명)	18.7% (바람직한 자녀수: 2.23명)
	그렇지 않다 (25.7%)	9.8% (바람직한 자녀수: 1.94명)	16.9% (바람직한 자녀수: 1.66명)

< 미혼자(N=349)의 결혼관/자녀관 및 바람직한 자녀수 >

		결혼관	
		꼭 해야한다(66.4%)	그렇지 않다(33.6%)
자녀관	꼭 필요하다 (69.5%)	53.7%(2.21명)	33.6%(2.25명)
	그렇지 않다 (30.5%)	12.6%(1.91명)	17.8%(1.66명)

< 기혼자(N=191)의 결혼관/자녀관 및 바람직한 자녀수 >

		결혼관	
		꼭 해야한다(63.9%)	그렇지 않다(36.1%)
자녀관	꼭 필요하다 (82.7%)	60.7%(95.2%) (2.25명)	22.0%(2.19명)
	그렇지 않다 (17.3%)	3.1%(4.9%) (2.17명)	14.1%(1.67명)

○ 경력단절 해결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보육시설의 신뢰도 향상과 양적 확충

- 보육시설의 접근성 및 신뢰도 미비로 '직접양육' 선택,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 어려움 가중
 -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로 응답자의 대다수 (71.7%)가 부부 및 친인척에 의한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것은 '마땅한' 보육시설의 부재 때문
 -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 역시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어려움 등 가정내 문제라기보다 '믿기 어려운 보육시설' 및 '인근에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
-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및 출산 후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
 - 미혼자의 73%가 결혼 후 아이를 직접 또는 친인척이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양육 방식에 보수적
 - 직접양육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라 미혼자 절반가량은 결혼 및 출산 후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

-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보육시설'의 욕구가 크며, 자녀수가 많아 집에 따라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욕구 다양화
 - 기혼자들의 육아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⁹⁾으로 추가 출산가능성에 부정적인 상황
 - 기혼자의 절반(50.8%)이 경력단절 원인을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자녀(2명이상) 기혼자일 경우 응답이 크게 증가
 - 또한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의 필요성도 (다자녀) 기혼자에 비해 상당히 높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 필요

4. 시사점

- 긍정적인 자녀관 및 희망 자녀수가 현실적으로 출산을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관이 우선, 미혼자의 결혼 장애요인의 해결 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혼관의 제고에도 관심 필요
- 결혼에 대한 미혼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결혼의 장애요인인 결혼 및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의 적용범위를 넓혀 결혼의 구조적 제약 완화 (예. 각종 지원의 소득기준선 및 지원기간 완화, 주택지원 등에 있어 先지원後규제식 운영 등)
- 기혼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미혼자의 결혼관 및 추가 출산가능성에 직접 영향, 출산율에 앞서 긍정적 결혼관의 제고가 우선
 - 조사결과 기혼자의 결혼관이 미혼자에 비해 부정적이며, 기혼자의 결혼관이 미혼자의 결혼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혼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문화 형성 및 교육 정책 추진 필요

9)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자들의 결혼 불만족 원인은 육아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37.8%), 배우자와의 소통(22.3%), 살림살이와 가사분담(22.2%), 시집 또는 처갓집과의 관계(18.6%) 순임.

- 다양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의 설계, 그리고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완화 지향
 - 출산 및 육아비용과 방법에 대한 편견 해소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직·간접적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과대평가된 출산 및 양육비용 등에 대한 인식을 현실화하고, 세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육아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홍보 필요
 - 미혼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미혼자들에게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의 설계 등 출산 계획의 현실화 유도
 - 입양 및 혼외출산 등의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 방안 추진
 - 2012년 혼외 출생자가 1만144명(신생아 중 2.1%)으로 1981년(9천74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¹⁰⁾
 - 독신 입양제도의 도입, '자발적' 혼외출산(의도된 혼외출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
 - 고령출산의 이원적(첫출산 및 늦둥이 출산) 대책 마련
 - 첫출산 연령의 고령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로 출산 연기 감소를 유도
 - 반면 기혼자의 늦둥이 고령출산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 확대 및 다자녀 늦둥이 출산에 대한 특별 지원
 - 고령임산부를 '분만취약자'로 지정, 임신기간 및 출산시 특별 관리체계 도입
 -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 불가에 대한 우려 해소
 - 본인 또는 친인척에 의한 직접 육아의 선호,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및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유도
 - 20~30대 미혼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향

10) 통계청, 2012년 출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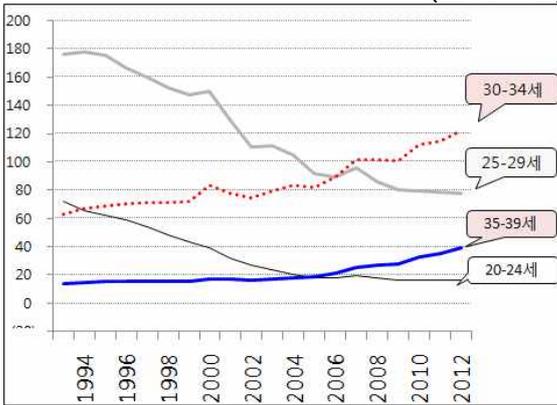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 필요
 - 다자녀의 경우 주된 양육자로 '보육시설'의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며, 인근에 아이 맡길 곳이 없고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
 -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별, 상황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설계 필요
- 직장내 보육시설¹¹⁾의 양적 확충은 기혼자의 보육시설 욕구 충족 및 미혼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의 지름길
 - 직장내 보육시설이 젊은 층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최우선 방안
 - 직장내 보육시설은 기혼자들이 희망하는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미혼자들이 우려하는 결혼 및 출산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선책 **HRI**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11) 여성가족부의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23%, 상장기업의 경우 7.4%가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함(여성가족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2012년)).

【별첨1】 연령별 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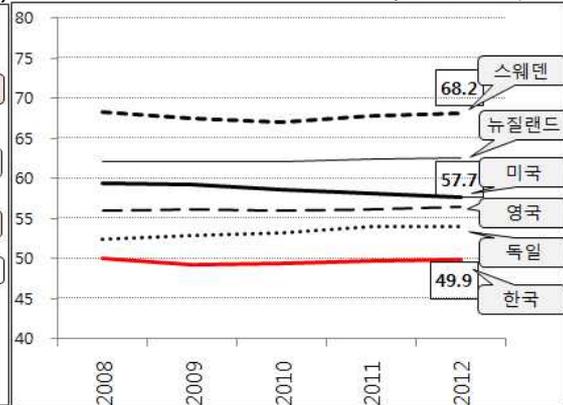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주 : 각 연령대별 1000명당 출산인구 수.

【별첨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ILO.

【별첨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전국 20~30대 기혼·미혼 남녀 540명
- 조사 방법: 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샘플링 및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
- 조사 기간: 2014. 1. 8 ~ 1. 21(10일간)

- 주요 조사 내용

- 결혼관: 결혼의 필요성,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
- 자녀관: 자녀의 필요성, 자녀의 역할,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
(미혼자 대상 추가질문: 입양 및 혼외출산에 대한 의견)
- 육아태도: 자녀의 주된 (예상) 육아자, 부담스러운 육아 비용, 적절한 육아비용 및 육아시간
-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 경력단절의 원인,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원인
-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양립제도: 저출산 정책 중 선호도, 일가정양립제도 중 선호도

<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 >

(단위: 명, %)

		빈도		연령		결혼		성별	
		(명)	(%)	20대	30대	기혼	미혼	남자	여자
소계		540	100.0	46.1	53.9	35.4	64.6	46.7	53.3
연령	20대	249	100.0	-		4.8	95.2	48.6	51.4
	30대	291	100.0			61.5	38.5	45.0	55.0
결혼	기혼	191	100.0	6.3	93.7	-		39.8	60.2
	미혼	349	100.0	67.9	32.1			50.4	49.6
성별	남자	252	100.0	48.0	52.0	30.2	69.8	-	
	여자	288	100.0	44.4	55.6	39.9	60.1		
월평균 가계 소득	300만원 이하	180	100.0	47.2	52.8	25.6	74.4	57.8	42.2
	301-500만원	246	100.0	47.6	52.4	38.6	61.4	43.9	56.1
	501만원 이상	106	100.0	40.6	59.4	44.3	55.7	35.8	64.2
직업	기업/민간단체	219	100.0	41.1	58.9	38.4	61.6	34.2	65.8
	공무원/공공단체	208	100.0	38.5	61.5	37.5	62.5	51.4	48.6
	학생	70	100.0	100.0	.0	1.4	98.6	77.1	22.9
	기타	43	100.0	20.9	79.1	65.1	34.9	37.2	62.8
지역	서울	113	100.0	50.4	49.6	31.0	69.0	44.2	55.8
	인천/경기	149	100.0	47.7	52.3	36.2	63.8	45.0	55.0
	대전/충청	55	100.0	40.0	60.0	41.8	58.2	47.3	52.7
	광주/전라	58	100.0	46.6	53.4	39.7	60.3	50.0	50.0
	부산/울산/경남	83	100.0	44.6	55.4	31.3	68.7	49.4	50.6
	대구/경북	58	100.0	43.1	56.9	31.0	69.0	48.3	51.7
	제주	7	100.0	28.6	71.4	57.1	42.9	57.1	42.9

【별첨4】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

(단위 : 명, %)

		빈도 (명)	부담스러운 자녀 육아비용					
			예체능 및 주요 과목 사교육비	보육시설/육아 도우미 비용	대학 학자금	자녀를 위한 의식주 생활비	자녀의 의료 비용	
전체		540	40.6	32.0	14.4	9.4	3.5	
결혼	기혼	191	39.3	38.2	11.5	8.4	2.6	
	미혼	349	41.3	28.7	16.0	10.0	4.0	
	자녀 수	0명	49	44.9	32.7	4.1	6.1	12.2
		1명	61	36.1	32.8	3.3	14.8	13.1
2명이상		81	35.8	48.1	1.2	4.9	9.9	
연령	20대	249	39.4	28.1	16.1	12.0	4.4	
	30대	291	41.6	35.4	13.1	7.2	2.7	
성별	남자	252	39.3	27.0	17.9	11.9	4.0	
	여자	288	41.7	36.5	11.5	7.3	3.1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	-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	-1.9	-11.9	-4.6	1.5	9.9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증감률(%)	5,552 (19.0)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7)	5,596 (2.1)	6,067 (8.4)
	수입(억 \$) 증감률(%)	5,244 (23.3)	5,196 (-0.9)	1,297 (-3.0)	1,267 (-2.8)	1,260 (0.3)	1,331 (2.5)	5,156 (-0.8)	5,697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